

초록번호 08-2

제 목	국 문	일부병원을 대상으로 한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의 타당도		
	영 문	Validity of Pap Smear in Hospital Patients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임현우, 권용일*, 이원철, 황인영, 구정완, 박종섭*, 김훈교**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산부인과학교실*, 가톨릭암센터**		
	영 문	Yim Hyeon Woo, Kwon Yong Il*, Lee Won Chul, Hwang In Young, Koo Jung Wan, Park Jong Sup*, Kim Hoon-Kyo**		
분 야	역학	발 표 자	임현우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 연구중 ( √ ) → 완료 예정 시기 : 99 년 4 월			
<p><b>1. 연구 목적</b></p> <p>자궁경부의 전암성 병변과 조기암을 발견하는 것이 침윤성 자궁경부암의 발생을 낮추고 이로 인한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자궁경부암의 선별검사로서 가장 표준화된 방법은 "Pap smear"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부터 전 의료보험조합에서 40세 이상의 여성에 대하여 2년에 한번씩 집단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성공적인 조기검진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높은 타당도를 가진 검사이어야 한다. 그러나 민감도(sensitivity)와 특이도(specificity)는 실제적인 조기검진 상황에서 추정하기가 어려우며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보고된 바 없다.</p> <p>본 연구는 조기검진으로 시행된 자궁경부 세포진검사의 타당도를 추정하기 위한 연구의 일부로서 병원에서 조직병리가 확인된 사람을 대상으로 세포진검사의 타당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p> <p><b>2. 연구 방법</b></p> <p>A병원을 대상으로 1994년부터 1998년 8월까지 5년동안 질확대경하 조준생검, 원추생검, 자궁적출술에 의한 검체표본에서 자궁경부에 병리조직학적 소견을 얻을 수 있었던 813명을 대상으로 하여 차트를 분석하여 확진 검사 이전에 실시된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였다.</p> <p>조직진단 이전에 시행된 세포진검사의 결과와 조직진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민감도 및 위음성을, 특이도 및 위양성을 평가하였다. 위음성세포진 및 위양성세포진에 대하여는 병리전문의 2명이 맹검법으로 세포도말표본을 재검토하였으며, 임상기록을 검토하여 원인을 분석하였다.</p>				

### 3. 연구결과

- ① 자궁경부에 대한 병리조직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813명의 환자중 188명은 자궁경부종양에 속하였고, 625명은 자궁경부 병리조직소견이 정상이었다.
- ② 자궁경부종양환자 188명중 154명이 조직진단 이전에 본 병원에서 pap. smear를 실시하였다. 그 중 35명이 위음성으로 나와 민감도는 77.2 %이었다. 위음성 세포진에 대한 분석상 sampling error 71.4%, interpretation error는 28.6% 이었다.
- ③ 병기에 따른 민감도로서 preinvasive lesion의 민감도는 74.5%(CINI & II group: 62.5%, CINIII & CIS: 76.9%), 침윤성 자궁경부암인 경우에는 81.7%이었다.
- ④ 자궁경부 병리 조직소견이 정상이었던 625명의 환자 중 195명이 조직진단 이전에 본 병원에서 pap smear를 실시하였다. 그 중 9명이 위양성으로 나와 특이도는 95.4% 이었다.

### 4. 고찰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시행한 후 조직학적 추적검사가 일부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직학적 검사소견에 의하여 조기검진의 타당도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민감도와 특이도는 검사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고 검사의 예측치(predictive value)는 유병률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조기검진이 이루어진 집단에서의 질병의 실제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기록된 결과로부터 민감도와 특이도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자궁경부의 병리조직소견이 확인 가능하였던 환자만을 대상으로한 자궁경부 세포진검사의 타당도이기 때문에 전암단계의 환자군을 포함한 집단조기진단의 타당도와는 차이가 있다.